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내적 상처와 연민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임유빈

내적 상처와 연민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임유빈

인 준 서

임유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본인의 작품 전개과정에서 생성된 작품들 중 2015년 8월 ‘스며드는 쓰다듬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되었던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적 전개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칼 구스타브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심리유형이론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제시하였다. 외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을 쏟는다. 반면에 내향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한다.

본인은 과거 굉장히 내향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자아에 대한 탐구가 청소년기 때부터 이어져 왔었다. 그리고 결혼한 후 출산과 양육이라는 경험을 통해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본인의 탐구영역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확장되었다. 어느 날 역 근처에서 자주 보아왔던 노숙인과 매춘부를 보면서 왠지 모를 강한 연민을 느꼈고 시간을 그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려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감정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의 사회는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는 더해지고 있으나, 정신적 안락을 유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즉, 군중 속에서의 고독감, 대중 속에서의 사회적 유대의 상실감, 예기치 않는 사회변동에서 오는 삶의 방향에 대한 예측력의 결여,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 앞에서의 무력감 등이 만연해 있다. 즉, 풍요한 사회이자 고도기술사회로써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신적 공백이나 인간 소외를 안고 있는 사회이

다.

본인은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은 인간 내면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모를 끄집어내어 이미지화 하고 작가의 손에 의해 쓰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내용적 전개를 통해 급속히 변화된 사회 안에서 삶의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할 때 느끼는 공감과 연민의 감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오며 인간을 탐구한 선행 작가인 프란시스 베이컨과 로버트 룡고의 작품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작품의 형식적 전개 에서는 본인 작업의 조형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비구상의 기하학적, 유기적 형태와 직조물을 이용한 질감의 표현과 색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적 분석과 형식적 전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인의 최근 2년간의 연구와 작품 활동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을 쓰다듬고 보듬어 주고 싶은 본인 내면의 에너지를 해소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는 공감과 연민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게 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3
1) 삶의 한계와 상처	3
2) 공감과 연민	5
3) 작품 연구	7
(1) 프란시스 베이컨	8
(2) 로버트 롱고	9
2. 작품의 형식적 전개	11
1) 기하학적, 유기적 형태의 만남	11
(1) 기하학적 형태	12
(2) 유기적 형태	13
2) 직조(織造)적 질감	14
3) 상처와 치유의 색	15
3. 《스며드는 쓰다듬을》	17
1) 작품분석	17

III. 결 론 38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무제,29.8x21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4
- [작품2] 무제1,15x15cm, gauze and acrylic on panel,2014
- [작품3] 무제2,14x22.9xcm, gauze and acrylic on panel,2014
- [작품4] 사랑받는 것1,53x33.5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4
- [작품5] 천한 것1,45.5x38cm,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 [작품6] 미련한 것1,40x4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7] 없는 것1,53x33.5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8] 미련한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9] 천한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0] 없는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1] 멀리받는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2] 약한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3] 사랑받는 것,164x6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4] 모눈종이 드로잉,각각22x15cm,pencil on paper,2015
- [작품15] 용서,100x7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6] 용서1,70x7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7] 용서2,70x7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8] 미정,140x7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 [작품19] 미정1,100x70cm,gauze and acrylic on panel,2015

참 고 도 판 목 차

- [참고도판1]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azquez), <Portrait of Pope Innocent X>, 140x120cm, oil on canvas, 16509
- [참고도판2]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Head VI>, 93.2x76.5 cm, oil on canvas, 19499
- [참고도판3]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Men in the Cities> 연작, 각각 243.8x152.4cm, charcoal and graphite on paper, 198110
- [참고도판4] 로버트 롱고, <Corporate War : Walls of Influence> 부분, 213.4x274.3x40.6cm, cast aluminum and lacquer on wood, 198210
- [참고도판5] 로버트 롱고, <Pressure>, 258x229x96cm, lacquer on wood; charcoal, graphite, and ink on paper, 198310
- [참고도판6] 카지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 <농부의 머리>, 71.7x53.8cm, oil on canvas, 192912
- [참고도판7] 카지미르 말레비치, <복잡한 예감>, 99x79cm, oil on canvas 1928~193212

I. 서 론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인간의 물질문명은 오늘날의 사회에 이르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는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물인 물질문명에 거꾸로 종속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인간소외현상을 낳게 되었고, 극단적으로는 인간성마저 상실되어 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간은 이제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생활의 무력감과 스스로의 존엄성 파괴로 인해 인간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들은 삶 속에서 심리적 고통과 수많은 갈등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범위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감은 인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위기극복에 대한 대안 창출에 직면하게 된다.

훔(David Hume, 1711~1776)은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인간의 마음은 서로에 대해 서로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즉 삶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상처와 갈등, 고뇌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수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본인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공감과 동시에 연민의 감정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가 발달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간내면의 복잡성과 그 안에 내재된 갈등과 고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삶의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은 인간 내면의 어둡고 부

정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형상화 한 것에 대한 작품연구 논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고찰하고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의 주제를 다룬 2014년과 2015년도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작품의 내용적 전개 1장에서는 현 시대, 즉 풍요로운 고도기술 사회로서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신적 공백이나 인간 소외를 안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서술하고 이로 인하여 삶 속에서 심리적 고통과 수많은 갈등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공감과 연민의 감정에 관한 연구를 설명하고 작품과의 관계를 설정한다. 또 사회상을 반영하고 ‘인간의 삶’을 주제로 다룬 선행 작가인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과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1953~)의 작품을 분석하여 인간의 모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했는지 연구하여 본인의 작품의 위치를 확인한다.

2장에서는 본인의 작업에서 보여 지는 조형어법과 기법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추상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비구상적 기하학적, 유기적 형태의 전개 과정과 직조물을 활용한 질감의 표현, 작품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색상의 선택 과정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작품의 조형적인 전개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전개 과정 속에서 표현된 방법들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 부분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분석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본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한계점과 새로운 표현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나 바램등을 서술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삶의 한계와 상처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인간 본연에 대한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인간에 관한 문제는 인간이 존재한 이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철학과 신학, 예술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경제개발과 고도의 발달된 과학기술로 물질의 풍요와 도시의 거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급속히 변화된 사회는 다의적으로 분화되어 다양한 가치와 양식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잃게 하고, 인간소외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물질의 풍요는 사회전반의 위기의식과 인간소외를 만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인간적,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물질적인 편의를 창조하는 능력은 신장되고 있지만 정신적 안락을 유지하는 능력은 위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인간 소외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사회, 자연, 타인 또는 대상을 상실하여 고독감, 소외감, 불안감, 무력감이 나타나게 되었다.¹⁾

1) 율은정.(2014).<포스트구조주의의 표현적 특성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인간의 삶을 중심으로>.석사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p32
송은경.(2003).<현대인의 소외된 내면세계에 관한 표현연구:역설적 표현 중심으로>.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서론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소외된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도 접촉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사물이 경험되는 바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다. 이 경험에는 물론 일상적인 의미가 담겨있으나 동시에 자기 자신이나 외부 세계와의 아무런 생산적인 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말한다.²⁾

프롬은 오늘날 사회적 성격을 분류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 소외개념을 사용하면서 헤겔과 마르크스에 의해 형성된 소외개념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 소외란 ‘인간이 그 자신을 이질적인 존재로서 경험하는 경험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³⁾

그는 소외개념이 인간성의 가장 깊은 근저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평균적인 개인의 성격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장 적절하게 부각시켜준다고 보고 있다.⁴⁾

소외된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 혹은 자기 행동의 창출자로 느끼지 않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그의 주인이 되어 그는 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하며, 타인으로부터 접촉이 끊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도 접촉이 단절되어 있어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대하게 되며, 지각과 성찰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 자신이나 외부세계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관계시키지 못한다.⁵⁾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소외란 말의 뜻 속에는 관계적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서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즉 사회로부터의 또는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으며 나아가 자아로부터의 인간 소외에까지 귀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⁶⁾

2) 에리히프롬,이규호(역).(1981).<건전한 사회>.서울삼성출판사.p302

3) 임춘식.(1990).<현대사회와 인간소외>.한남대학교출판부. p35-42

4) 김승원.(1999).<에리히 프롬의 인간 소외에 대한 연구>.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p4

5) 임춘식.(1990).<현대사회와 인간소외>.한남대학교출판부. p35-42

6) 위의 글p13-34

우리 사회의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연대감도 상실하고 있다. 즉 풍요한 사회이자 고도기술사회로서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신적 공백이나 인간 소외를 안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정체성 상실, 인간관계의 변질 현상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삶 속에서 심리적 고통과 수많은 갈등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범위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2) 공감과 연민

흄(David Hume, 1711~1776)은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A Treatise of Human Nature)에서 “인간의 마음은 서로에 대해 서로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⁷⁾

이렇게 앞서 언급한 사회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즉 인간의 상처받고 어두운 면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수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대표적 감정으로 연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민은 공감이 선행된 결과로서의 감정이다.

먼저 공감은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 등과 같은 도덕적 감정들을 일으키기 위한 작동 원리 또는 힘(power)으로 도덕적 감정은 아니다. 연민의 감정은 타자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 같이 그 고통과 불행을 느낌으로써 갖게 되는 도덕적 감정이며, 공감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나의 심리적 작동 원리 또는 힘이다.⁸⁾

흄은 공감과 연민에 관하여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2권 1부 11절(명예욕에 관하여)에서, 그리고 연민에 관하여서는 2권 2부 7절(연민에 관하여)에서 자

7) 김용환.(2003).<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철학 제 76집>한국철학회발행.p173 Hume D., Treatise, p.365.

8) 위의 글p161

세하게 다루고 있다. 공감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곳에서 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 본성의 성질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기질이나 감정이 아무리 우리와 다르고 또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상호 교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질과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공감의 기능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성향을 의미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균일성이나 유사성이 모두 이런 공감의 기능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공감력의 공유는 각각의 개인이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더 강하게 작용된다.⁹⁾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의 1장을 ‘공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원리들이 있고 연민의 감정과 공감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공감이라는 말은 그 가장 적절한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포감정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공감이 일차적으로는 타자의 슬픔과 고통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임을 의미한다.¹⁰⁾

그렇다면 연민의 감정은 어떤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는 『수사학의 기술』(The Art of Rhetoric) 2권 8절에서 연민의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민은 일종의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고통을 받을만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통스러운 악을 볼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 악은 그것이 가까이 보일 때 자신에게나 친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악이다.¹¹⁾

9) 김용환.(2003).<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철학 제 76집>한국철학회발행.p162

10) 위의 글p163

11) 위의 글p164

흠도 연민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염려하는 것” 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이 연민의 감정을 더 쉽게 일으키는데 고통 받는 비극의 주인공에게 누구나 더 쉽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유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¹²⁾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경험을 통해 타인,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인간탐구의 영역이 확장 되었다. 어느 날 역 근처에서 자주 보아왔던 노숙인과 매춘부를 보면서 강한 연민을 느꼈는데, 이것은 모성이 바탕이 된 개인의 인생에 대한 연민이자 인생이 지니는 고됨에 대한 연민 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마음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로 제작된 [그림8,9,10,11,12,13]은 6개의 시리즈 작품이다. 소재는 지적장애인, 매춘부, 노숙인, 범죄자, 환자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적 내적으로 상처 받은 존재이자 동시에 우리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두운 속성을 이미지화 하였고 자신이면서 자녀라는 대상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6개의 인물 회화 작품을 구상하였다.

3) 작품 연구

인간의 삶을 표현함에 있어 예술은 시대 속 환경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로, 때로는 권력의 도구로, 때로는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심어주고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¹³⁾ 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삶’ 에 관한 주제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에 관한 갈등이나 유한한 인간의 육체, 끊임없이 갈

12) 김용환.(2003).<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철학 제 76집>한국철학회발행.p164

13) Ernst Fischer,김성기(역)(1984).<예술이란 무엇인가>.서울:돌베개.p16

구되어지는 인간의 욕망 등 그 의미를 성찰하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 작품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상을 반영하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등 ‘인간의 삶’을 주제로 다룬 동시대의 대표적 작가인 프란시스 베이컨과 로버트 롱고의 작품사례를 연구조사 하고 본인의 작품과 연관 지어 보고자 한다.

(1)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자주 택한 주제와 관심은 전쟁 전후의 극도로 혼란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며, 상실된 인간의식이고, 본연의 자아에 대한 탐구이다. 베이컨은 인간을 주제로 한 격렬한 이미지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분노와 공포, 불안과 위기를 기괴하게 표현해 낸 작가이다. 그는 유럽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전통을 잇는 형상미술을 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은 작품을 완성시켰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세대인 베이컨은 인간 살육이 행해지는 가장 혼란된 상황인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며 긴장과 폭력의 분위기속에 가치관을 확립하였다. 그는 심리적인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살아왔으며, 유년기에 가해진 참을 수 없는 폭력과 인류가 저지른 부끄럽고 파렴치한 전쟁에 대해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가정환경, 시대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평생을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작품을 완성해 갔다. 베이컨의 작품은, 인간의 부조리를 단호히 고발하고 냉정하게 직관한다. 그는 작품을 통해 불안하고 괴멸되어져 가는 현대시대의 혼돈적인 사회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¹⁴⁾

베이컨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인간의 초상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4) 오재욱.(2013).<이상의 형상화를 통한 불안한 현실 극복의지 표현 연구:오브제의 재생을 통한 본인의 조형작품을 중심으로>.석사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p19

그는 영국 회화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초상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1940년대 후반의 예술분야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인간 존재의 고통에 대해 참신한 시도를 가하였다. 베이컨은 초상화의 표현 방식에 있어 독창적인 기법과 색채를 사용하였으며, 복제품과 사진을 이용해 초상화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다.

[도판1] 디에고 벨라스케스, <Portrait of Pope Innocent X>, 1650

[도판2] 프란시스 베이컨, <Head VI>, 1949

베이컨은 충격과 고통을 지닌 인간의 내면을 끌어내서 이를 거칠고 야수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이는 곧 여러 가지 확고한 근거를 잃어버린 혼란한 사회상황 속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그의 작품은, 주로 관념적인 이미지를 담아낸 과거의 초상화들과는 다르게 절규하는 인간본성의 실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베이컨의 작업은, 상실된 인간의식이며 자아에 대한 탐구였다.

(2)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1953~)

1970년대 중반 뉴욕 미술계에 등장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로버트 롱고(Robert Longo)는 당시의 미니멀한 작업으로부터 198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성적인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독특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롱고는 현대 사회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표현하고자했다. 주로 인체를 매개체로 하여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로버트 롱고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구비한 형상화된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자아 분열적이거나 일탈적이면서 굴절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상은 그의 작품에서, 현대인들의 소외와 갈등, 냉소, 인간관계, 무력감, 익명성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출된다. 이것은 그의 작품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 의해 개인이 파괴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로버트 롱고의 작업에 나타난 인간상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로버

트 롱고의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주인공들은 작가의 자화상임과 동시에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¹⁵⁾

[도판3]로버트 롱고,〈Men in the Cities〉연작,1981

롱고는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조절 당하면서도 그 막강한 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 익명화된 인간을 중심으로 작업하였다. 또한 그는 작품을 통해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당시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대중문화의 이미지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 안에서 개인의 소외와 불안한 상황에 대한 저항과 심리적인 고뇌에 대한 묘사이다. 롱고는 이렇게 각 요소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권위에 대한 이미지를 적개심과 폭력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 걸쳐 현대인들이 일상을 보내는 장소로서의 도시와 건물은 어둡고 무거운 색채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도판4]로버트 롱고,〈Corporate War : Walls of Influence〉,1982,부분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이나 속박을 힘의 논리와 결합하여 연출한 작품으로 〈Pressure〉를 꼽을 수 있다. 수직으로 접히는 두 개의 패널로 구성된 작품에서 위쪽에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아래에 빼어로의 형상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표현된 남성을 내리누르는 듯한 구성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으로서, 사회에 대한 괴리감으로부터 겪은 삶의 무게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도판5]로버트 롱고,〈Pressure〉,1983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주제로 한 이미지의 작품을 통해 자아에 대한 탐구와 동시에 인간 내면의 분노와 공포, 불안과 위기를 표현해 낸 작가이다. 로버트 롱고는 현대인의 상실감을 동 시대 사람들의 이미지로서 표현 하였다. 두 작가 모두 동시대의 감성을 공유하며 ‘인간의 삶’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

15) 오재욱.(2013).〈이상의 형상화를 통한 불안한 현실 극복의지 표현 연구:오브제의 재생을 통한 본인의 조형작품을 중심으로〉.석사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p24-26

가이다. 본인의 작업 역시 ‘인간의 삶’ 을 다루며 로버트 롱고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현대인처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소재로 삼아 소외되고 상처 받은 인간을 표현한다. 하지만 인물을 통해 인간 저변의 본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업과 내적 표현성이라는 유사성도 지니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인물의 형상은 주관적 감각에 의해 새로운 형상을 가진다. 베이컨 역시 회화가 단순히 외형의 재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본질을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주관적이며 감각적으로 변형된 형상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모사보다 인물의 감추어진 본질을 더욱 잘 드러낸다고 믿었다. 베이컨은 작가 자신만의 필치로 ‘형상’ 이라는 새로운 닻의 개념을 추구하였는데 본인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작업하고 있다.

2. 작품의 형식적 전개

1) 기하학적, 유기적 형태의 만남

본인의 초기 작품은 원, 삼각형, 사각형의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2,3] 단순한 도형들은 마치 갓 태어난 형(形)으로서 다른 이미지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의 형태처럼 느껴졌고 도형이 가진 의미보다 조합 자체가 조형적 흥미와 즐거움을 주었다. 그 후 본인은 원 형태를 심상에서 추상화, 단순화 시키는 과정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미지는 비구상의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의 만남과 충돌로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본인은 작품에서 형태를 단순화 시키는데 이는 카지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 1878~1935), 파울 클레(Paul Klee, 1879~1940),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색과 형으로만 이루어진 추상적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추상미술은 비대상미술, 비구상미술, 비재현적

미술이라고도 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사물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미술을 가리킨다. 자연의 구체적 대상을 거의 재현하지 않고 색, 선, 형 등의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주류의 하나를 이룬다. 추상미술은 미술 일반의 추상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세련되게 하였고 또 설명적 묘사에 따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의 이해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바 크다.¹⁶⁾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형상은 단순화 되어진 함축된 이미지의 도상이다. 이미지를 단순화 시키는 것은 구체적 형상을 통한 이미지의 외적 묘사 보다 내적 감성적 의미 서술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은 이미지적 서술 보다 절제되고 암시적이며 단순화 되어진 기본적 조형요소인 색, 질감의 운용을 통해 내적 심상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1) 기하학적 형태

기하학(Geometry)이란 도형 및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¹⁷⁾ 기하학적 형태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인 형태로 수학적 법칙과 함께 생기며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규칙적이며 단순성이 두드러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가 취하는 근본적인 입장은 자연적 형태에서 파생되었으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연과는 반대되는 형태로 인식된다.

기하학적 형태란 인공적인 추상의 형태이며, 인간의 사고체계에 의해서 창조된 정확하과 차가움의 의미를 지닌 이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하학적 형태는 가장 단순한 요소로 환원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쾌한

16) 월간미술.(1999).세계미술용어사전.월간미술.p446

17) 김인기.(2002).<자수에 의한 기하학적 도형 연구:정육면체를 중심으로>.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p13

느낌을 주며, 그 간결함 속에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¹⁸⁾

카지미르 말레비치는 기하학적 형태들을 사용함으로써 절대적인 ‘순수성’을 살려 형태를 결합하고 미술언어의 근본적인 것들을 구성한 대표적 화가이다. 말레비치는 미래주의시기에 이르자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여 원통형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도판6]〈농부의 머리〉,1929

그 후 자신의 참된 주제인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에 더욱 집중한 결과 인간, 땅, 하늘이라는 세 요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감축시킨다. <복잡한 예감>과 같은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원경에 표현되었던 인물들이나 세부 풍물에 대한 묘사는 일체 사라지고 눈, 코, 입 등의 세부가 모두 사라진 인물의 얼굴 표현은 어떤 심리적, 일상적 내용도 제거되어 초월성의 주제만이 부각된다.¹⁹⁾ [도판7]〈복잡한 예감〉,1928-1932

본인작품 중 말레비치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히 [작품7,10,11,12,16]는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직선적인 형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형태는 소외된 인간의 경직되고 굳어진 내면의 형상으로 단순화, 도형화 되어있다. 특히 [작품14]는 모눈종이위에 드로잉 함으로서 계산적이고 구조적인 느낌을 부각 시키고자 했다.

(2) 유기적 형태

본인의 작품 중 자주 등장하는 유기적 형상은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드로잉할때 등장하는 형태이다. ‘유기적’ (Organic)이라는 단어는 도구나 음악 기구와 관계있는 'Organ'에서 파생된 단어로 수단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자연계의 유기체가 가지는 특성과 관련된 용어이다. ‘유기적’이란 유기체(有機體) 같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며 각 부분이 전체와 통일성을 이루는

18) 위의 글p13

19) 윤난지역음. (2010).〈추상미술 읽기〉.미진사.p45

것을 말한다.²⁰⁾

유기적 형태는 자연 형상에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균형, 조화, 비례, 율동, 균형, 연속성, 통일성, 비정형적 대비와 대조 등의 다양한 조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생명을 지닌 유기체의 각 부분들은 상호 관계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자체로 조형적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 예술에서는 이러한 자연이 가지는 조형원리를 통해 본질적인 의미 이상의 미(美)를 만든다.

드로잉에서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일관된 유기적 형태의 규칙을 찾을 수 있다. 기쁨, 설렘, 행복감등의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는 구불거림의 간격이 넓으며 크기도 비교적 크다. 반면에 긴장, 불안,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 할 때는 구불거림의 간격이 좁고 크기도 비교적 작고 밀집되어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구불거리는 유기적 형태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뇌나 장기와 같은 인간의 외형적 이미지를 도상화 시킨 것이다. [작품6,8]에서 구불거림은 마치 인간의 장기를 연상시키는 형태이다. 매끄러운 겉 안에는 생명력을 숨기듯 내부로 갈수록 강해지는 구불거림이 있고 색 또한 어두워진다. 이것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미련함과 무지와도 같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적 어리석음만이 표현된 것은 아니며 하단부의 희미한 빛이 전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본인의 작품은 기하학적 형상으로 단순화, 도형화된 경직되고 굳어진 내면의 모습과, 신체의 외형적 이미지의 도상화인 유기적 형상의 결합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 직조(織造)적 질감

본인의 작업은 대개 패널 위에 거즈를 씌워 고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

20) 채지나.(2014).<유기적 형태를 조형화 한 장신구 연구>.석사논문.홍익대학교 대학원.p5

기서 거즈는 본인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사람은 출생 직 후 바로 천에 싸이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천에 싸인다. 천은 생(生)과 사(死)를 함께한다. 또한 인간의 몸을 감싸 보호하는 역할처럼 현 시대의 딱딱하고 메마른 현실을 천이 주는 친밀감으로 감싸고 싶은 의지가 포함된다.

연구자의 작업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가는 앵포르멜 화가들과 선구주자인 장 뒤뷔페이다. 뒤뷔페는 초보적이고 불완전해보이나 순수한 형태로 빛나는 창조성을 가진 정신병자나 어린아이들의 그림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순수하고 기본적이며 날것 그대로의 거친 예술을 지향했다. 앵포르멜의 많은 화면에서 사용되는 안료는 ‘시각적 환영’ 보다는 ‘촉각적 질감’의 효과를 낸다. 우리는 창조적 힘으로서 ‘물질’을 보는데 물질은 정신으로부터 형태를 빌려 입는 소극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형태를 산출한 가능성을 내재한 적극적인 힘인 것이다.

본인의 작품도 주제 전달을 위해 배경에서 나타나는 촉각적 질감에 비중을 두고 있다. 패널 위에 거즈를 씌워 고정시킨 후 채색을 하는 과정에서 촉각적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인물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거즈를 훼손시키거나 손톱가루 먼지 덩어리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질감의 표현은 [작품7,10,11,18,19]에서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작품7,10]을 보면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이미지는 노숙인 이다. 노숙인의 신체중 발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마르고 갈라져 곧 흠이 되어 버릴 듯한 발이 너털거리는 옷가지 사이로 드러나 있었다. 그 장면은 본인에게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작품은 노숙인 자체를 표현 했다가 보다는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표현 방법으로 패널 위에 거즈를 씌우고 사포, 칼 등으로 손상시키고 먼지, 머리카락 등을 섞은 안료로 거즈를 고정 한 후 방치하거나 버려진 것처럼 둔다. [작품11]은 거즈를 고정한 후 칼로 전면을 긁고 다시 고정한 후 동일한 과정

을 두 번 더 거쳐 날카로운 자국과 딱딱하고 거친 배경을 만들었다.

본인은 거즈(직조물)를 인간의 살 혹은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여기며 다룬다. [작품18,19]는 더러워지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작품19]에서는 패널 위에 거즈를 씌우기 전에 패널에 본인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색상인 녹색 계열의 색과 검은색 등의 물감을 사용하여 더럽히고 그 위에 거즈를 씌우고 고정하였다. 다음으로 거즈를 사포로 굽고 찢어 훼손시키고 흰 물감을 여러 번 발라주어 깨끗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3) 상처와 치유의 색

본인은 작품에서 거즈를 씌워 사용하는데, 직조물이라는 이중적 표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명도가 낮은 색이 배경으로 보통 사용된다. 이것은 또한 작품의 의미와 연관이 있는데, 인간이 내면의 한계와 어두움을 딛고 일어나는 것처럼 어두운색의 바탕위에 그러한 긍정적 의미로서 채도와 명도가 비교적 높은 색이 채색되어진다. 색채 선택에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색채 선택은 개인 인성의 반영에 있어서도 같다. 로르샤흐(Rorschach Hermann 1884~1922)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청색과 녹색을 좋아하고 적색을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화가 개인의 특징적인 색 체계도 역시 그들 작품의 주제와 관련을 가지며 그들의 개성이라는 것에도 관련을 갖는다.²¹⁾ 본인 작품의 많은 이미지들은 채도가 낮다. 주제와 연결하여 소외받고 상처받은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색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채도가 낮은 색의 선택은 본인의 취향에 의한 것이다. 채도를 낮추어 색을 선택하는 것은 낮은 채도의 색이 세련되고 조형적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작품10]에서는 붉은 회색빛의 물감을 색상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부분적으로 발라주고 마른 후 다시 바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얼룩이 생기며

21) 루돌프 아른하임, 김춘일(역). (1995).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p340

이러한 얼룩은 레이어드를 생성한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미지화 시키고 역사성을 띠도록 의도한 것이다. [작품18,19]에서는 더럽혀진 패널과 거즈위에 붉은 흰색 물감을 덧입히고 마른 후 다시 덧입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흰색을 띄게 하여 마음과 정신의 회복과 치유를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은 부정적인 색으로서 대표적으로 검정색과 녹색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검정색은 일반적으로도 어두운 의미로 사용되고 녹색은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마음에 평안을 주며 자연을 상징하는 원초의 색이다. 그러나 본인에게 녹색은 긍정적인 색만은 아니다. 어린 시절 오염되어 더러워진 냇가에서 보았던 황록색의 길이가 긴 이끼와 시골집의 곰팡이를 잊을 수가 없다. 그 기억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녹색은 싱그러운 자연의 색만이 아닌 더럽고 기피하고 싶은 색으로도 여겨졌다. 작품에서도 짙은 회색과 녹색계열의 색을 통해 마음과 정신에 낀 더러움이나 상처를 표현하고자 했다.

3. 작품 분석

작품분석은 2015년 8월 ‘스며드는 쓰다듬을’ 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되었던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전개과정을 연구한 결과를 서술한다.

1) 작품8,9,10,11,12,13

[작품8,9,10,11,12,13]은 6개의 시리즈 인물 회화 작품이다. 이것은 성경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27~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 이라는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리서치 과정에서 인물은 지적장애인, 시한부 환자, 매춘부, 범죄자, 노숙인 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적 내적으로 상처받은 존재이자 동시에 우리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속성을 이미지화 하였고 자신이면서 자녀라는 대상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6개의 인물 회화 작품을 구상하였다.

6개의 인물회화에서는 발터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알레고리 개념을 사용하였다. 알레고리(allegory)는 본래 우의, 풍유의 뜻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알레고리아(allegoria)’에서 유래되었다. 알레고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나 이미지를 중첩 시켜서 현상, 추상적인 개념, 상황 등을 표현하는데 이는 추상적, 금기적, 종교적 개념이나 사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핵심적으로 사용되었다.²²⁾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로 구분하여, 1차적 의미를 통해 인물, 행위, 배경 등 통상적인 요소를 표면에 형상화하고, 그 요소의 배면에 정신적, 도덕적, 역사적 의미를 2차적 의미로 전개시키는 수사적 방식이다. 따라서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혹은 관념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르게 형상화하거나 어떤 개념을 형태의 이미지 또는 이야기로 전환시킨 비유적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²³⁾

벤야민은 수 세기 동안 상징의 하위개념으로 여겨져 왔던 알레고리를 텍스트나 회화에서 신화적이며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발전시키고 예술적 미적 현상을 읽어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활시킨다. 벤야민은 기표가 지시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기의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알레고리의 자의적인 특성에

22) 최은정.(2006).<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여화여자대학원.p27

23) 노용무.(2004).<현대시의 문학적 체험과 알레고리 국어문학 39집>.p81

서 나타나는 이질성과 우발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벤야민은 거짓된 총체로서의 상징보다, 파편으로서의 알레고리가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개념이 설득력을 상실한 현대의 파편적인 세계를 보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즉, 전체에서 떨어져 나온 비체계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알레고리는 절대적인 의미가 해체된 상태인데, 이와 동일하게 현대사회도 파편화된 현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알레고리는 현대를 읽어내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 현실을 읽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파편화되고 이질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미 있는 전체로 읽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²⁴⁾

[작품8,9,10,11,12,13]의 패널은 시체를 넣는 관 사이즈의 비율로 제작되었는데 길이가 가로60cm, 세로164cm로 높이는 본인의 신장과 같다. 이것은 작품이 작가를 투영한다는 것과 또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삶과 연관하여 의도된 것이다. [작품8,9,10,11,12]의 5명의 인물들은 소외되고 어두운 인간 속성의 상징이지만 사랑의 대상인 자신이자 자녀라는 이미지[작품13]와 함께 동등한 위치로 배열시킴으로서 다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작품을 제작하면서 인간의 자신을 모르는 미련함, 육체적으로 나약함, 색(色)적인 마음, 용서가 없는 상처, 삶에 무게에 짓눌린 무기력함을 거스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연민을 넘어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본인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면서 작품은 자화상적 의미 또한 가진다. 작품은 본인의 손에 의해 어루만져지고 쓰다듬어 지는데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6개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면 각각이 나타내는 상징을 넘어 구성적 결과의 의미와 표상을 갖게 되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위의 글을 통하여 하나의 시리즈로 [작품8,9,10,11,12,13]을 보았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각각의 작품을 서술한다. [작품8]은 자신에 관하여 무지한 인간

24) 김혜영.(2000).<문학적 체험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연구 7집>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p317

을 표현한 것이다. 지방 덩어리와 같은 두껍고 비대한 정신 안에, 내부로 갈수록 생명이 감추어지는 듯이 어두워지며 더욱 복잡해지는 구불거리는 형상이 있다. 그러나 희미한 금빛색깔의 빛이 긍정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 [작품9]는 인간의 색적인 마음으로 [작품5]가 추상화 된 것이다. 두개의 원형 이미지는 붉은색의 얼룩진 듯한 배경 안에서 충돌하며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 개인적으로는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작품10]은 [작품7]을 발전시킨 것으로 노숙인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특별히 너털거리는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메마른 발을 기억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곧 부서져 흩어질 것 같은 발은 마치 삶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작품에서는 인위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직선적인 형태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간의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으로, 거즈를 훼손하며 생긴 자연스러운 배경의 형태와 대조를 이룬다. [작품11]은 제작 과정에서 거즈를 고정한 후 칼로 전면을 긁고 다시 고정한 후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더 거쳐 날카로운 자국과 거친 배경을 만들었다. 그 위에 기하학적이며 날카로운 이미지의 삼각형과 반원형태의 구성으로 상처로 인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을 표현하였다. [작품12]는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으로 소재는 시한부 환자이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육체는 인간의 유한함과 물리적 나약함을 생각하게 하였다. 작품에서는 개인적으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연상되는 색인 옅은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배경으로 사용하였으며 중심부에는 죽음이 드리운 듯한 검정색의 몸과 대조적인 흰색의 머리가 상상을 자극한다. [작품13]은 [작품4]를 발전시킨 것으로 유기적 형태, 붉은색 계통의 색상과 금색의 사용으로 사랑받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는 타인과 자신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대상일 지라도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나타낸다.

2) 작품15,16,17

[작품15,16,17]은 용서라는 주제의 작품이다. 용서는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즉, 용서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적인 성향, 기질적 특성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상황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또한, 누구를 용서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타인용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 상황을 용서하는 상황용서, 신(God)을 용서하는 신용서 등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²⁵⁾

용서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지만 용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로 본인 또한 용서는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용서는 슬픔, 분노, 우울, 불안, 수치심,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무망감을 감소시키는 등 심리적 안녕을 가져온다.²⁶⁾

본인은 상처받은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작품 15,16,17]을 제작하게 된다. 상처 받았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대로 그것은 타인, 자신, 상황, 신 등이 있을 것이다. [작품15]에서 중앙에 있는 기하학적 원뿔형태의 형상은 거대하고 단단한 가시였으나 붉은색의 액체에 의해 부식되고 녹아져 스며들어 작은 일부만이 남았다. 이것은 느리지만 인내를 통한 용서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16]도 동일한 주제이나 표현 방법을 달리하여 거즈를 씌운 패넬위에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색의 천을 씌워 고정하였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뾰족한 마음이 붉은색 천에 의해 간혀 녹고 있음을 나타낸다. [작품17]은 구불구불한

25) 박해인.(2013).<용서신념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용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논문.서강대학교 대학원.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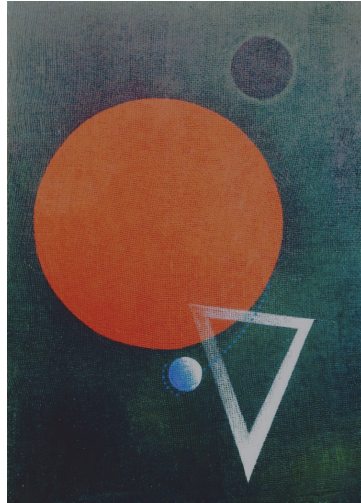
26) 박해인.(2013).<용서신념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용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논문.서강대학교 대학원.p13,14

형상의 드로잉적 요소가 있는 작품으로 계획아래 구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운 드로잉적 요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며 동일한 용서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미지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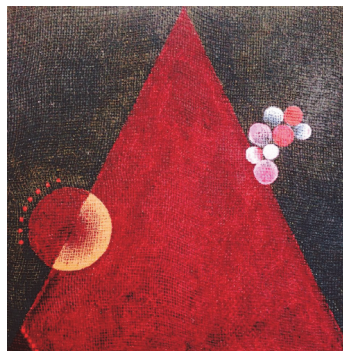
3) 작품18,19

[작품18,19]는 본인의 작품 중 가장 비 구상적인 작품으로 질감과 색을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였다. 작품은 더럽히고 훼손된 패널과 거즈위에 묶은 흰 색물감을 스며들게 하고 마른 후 다시 스미게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흰색을 띄게 하여 육체, 마음과 정신의 회복과 치유를 표현했다. 본인은 부정적인 색으로서 대표적으로 검정색과 녹색계열의 색을 사용하는데 작품에서의 짙은 회색과 녹색은 마음과 정신에 낀 더러움이나 상처를 의미한다. 그 위에 덧 입혀진 흰색은 깨끗함과 고결함 그리고 순결함을 대표하는 색이다. 흰 물감의 채색의 방법은 손에 의해 쓰다듬어지며 이루어지는데 쓰다듬는 행위 자체에는 공감과 연민의 감정이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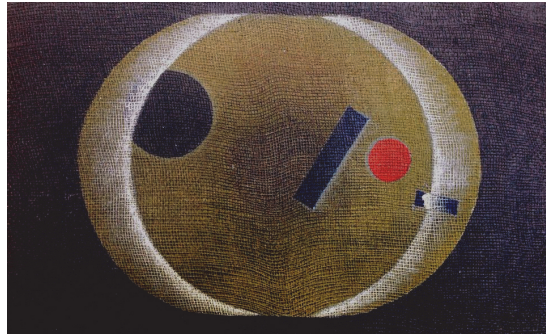
작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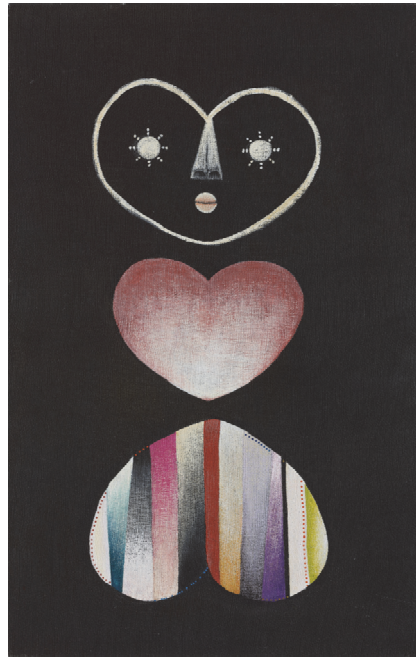
[작품1] 무제, 29.8x21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4



[작품2] 무제1, 15x15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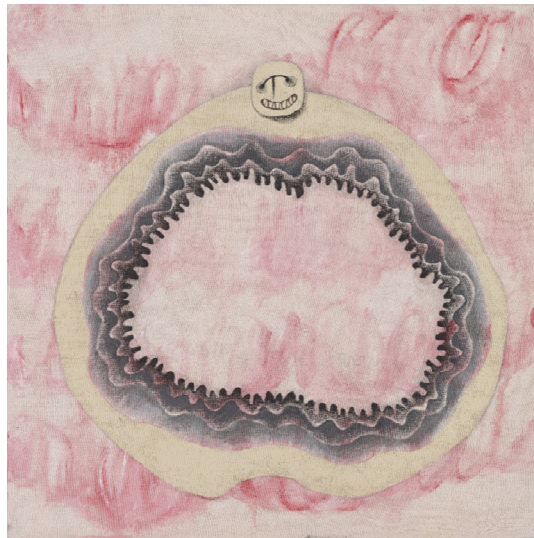
[작품3] 무제2, 14x22.9x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4



[작품4] 사랑받는 것1, 53x33.5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4



[작품5] 천한 것1, 45.5x38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6] 미련한 것1, 40x4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7] 없는 것1, 53x33.5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8] 미련한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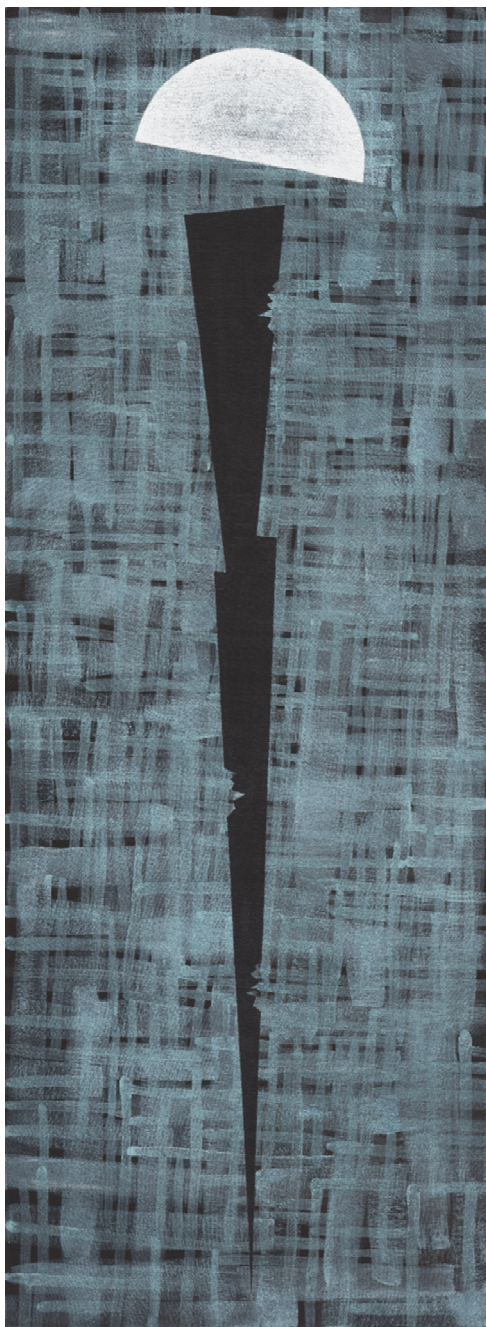
[작품9] 천한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0] 없는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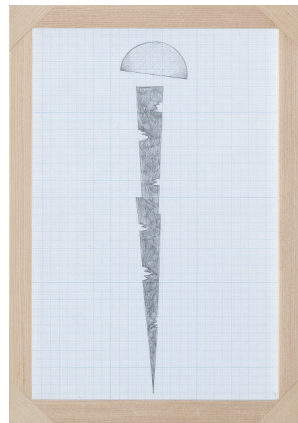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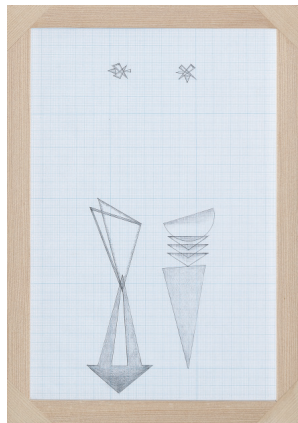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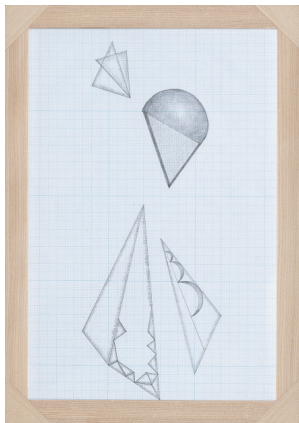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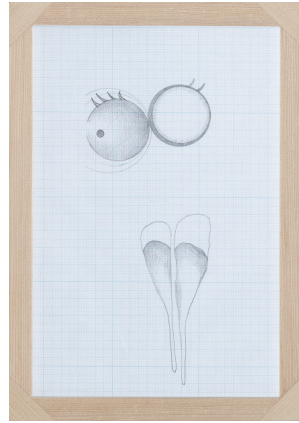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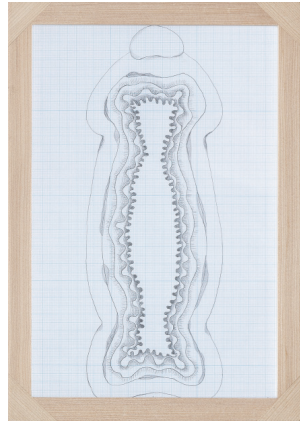
[작품11] 열시받는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2] 약한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3] 사랑받는 것, 164x6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4] 모눈종이 드로잉, 각각22x15cm, pencil on paper, 2015



[작품15] 용서, 100x7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6] 용서1, 70x7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7] 용서2, 70x7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8] 미정, 140x7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작품19] 미정1, 100x70cm, gauze and acrylic on panel, 2015

Ⅲ. 결 론

인간의 문명은 오늘날의 사회에 이르러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물인 물질문명에 종속되는 경향이 강해짐으로써 인간소외현상을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한 생활의 무력감과 스스로의 존엄성 파괴로 인해 인간 내면의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기감은 인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위기극복에 대한 대안 창출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논문은 삶의 한계와 마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외되는 인간을 바라보며 느끼는 공감과 연민의 감정에 대해 서술 하였다. 또한 현대의 대표적인 작가 중 인간을 탐구한 선행 작가인 프란시스 베이컨과 로버트 롱고의 작품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업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이어서 작품에 등장하는 비구상의 기하학적, 유기적 형태와 직조물을 이용한 질감적 표현, 색의 선택과 사용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적 분석과 형식적 전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본인은 삶의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스며들며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을 바탕으로 공감과 연민이라는 감정의 연구와,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인은 소외된 인간을 연민이라는 감정을 통해 바라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며 “예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사물을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라는 파울클레의 말처럼 작품으로서 예술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작업과 연구를 통해 본인은 연구 목적의 첫 단계로 나아갔다고 생각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가 노출되었다. 먼저 작품에서 조형적 실험이

많은 부분 이루어지면서 주제의식과의 균형이 맞추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색채 사용에 있어서 채도와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사용하여 긍정적 메시지가 표현되기보다 암울한 묵시적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천의 질감이 모두 드러나 무거운 느낌을 주었고 그에 따라 절제된 질감의 표현성이 필요했다.

앞으로의 작품 진행 방향에 있어 본인의 관심사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시간적, 역사적 흐름 안에서 찾아가고 그 과정을 이미지화 하는 것이다. 향후 작업에서는 직조물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며 조형적 실험과 주제의식의 균형을 위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본고에서 시작된 연구는 앞으로의 작품에 기본적인 척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작업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한 작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도 판



[참고도판1] 디에고 벨라스케스, <Portrait of Pope Innocent X>, 140x120cm,
oil on canvas, 1650



[참고도판2] 프란시스 베이컨, <Head VI>, 93.2x76.5cm, oil on canvas, 1949



[참고도판3] 로버트 룡고, <Men in the Cities>연작, 각각 243.8x152.4cm,
charcoal and graphite on paper,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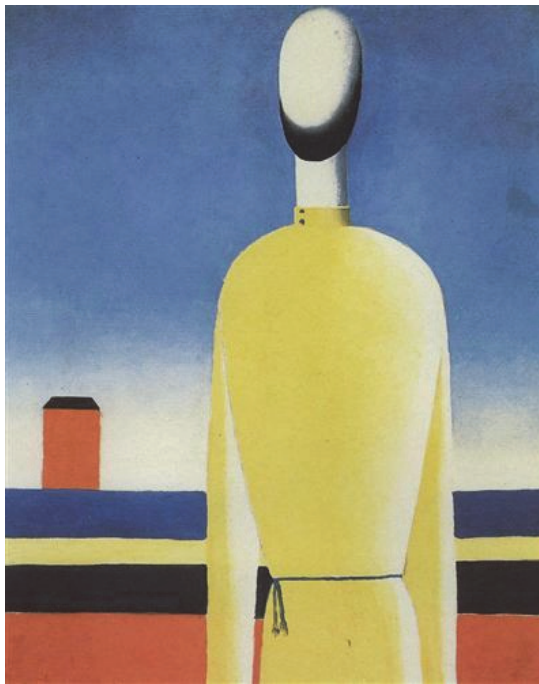
[참고도판4] 로버트 룡고, <Corporate War : Walls of Influence>부분,
213.4x274.3x40.6cm, cast aluminum and lacquer on wood, 1982



[참고도판5] 로버트 룡고, <Pressure>, 258x229x96cm, lacquer on wood;
charcoal, graphite, and ink on paper, 1983



[참고도판6] 카지미르 말레비치, <농부의 머리>, 71.7x53.8cm, oil on canvas, 1929



[참고도판7] 카지미르 말레비치, <복잡한 예감>, 99x79cm, oil on canvas,
1928~1932

참 고 문 헌

<학위 논문>

김승원.(1999).<에리히 프롬의 인간 소외에 대한 연구>.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인기.(2002).<자수에 의한 기하학적 도형 연구:정육면체를 중심으로>.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혜인.(2013).<용서신념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용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논문.서강대학교 대학원

송은경.(2003).<현대인의 소외된 내면세계에 관한 표현연구:역설적 표현 중심으로>.석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오재욱.(2013).<이상의 형상화를 통한 불안한 현실 극복의지 표현 연구:오브제의 재생을 통한 본인의 조형작품을 중심으로>.석사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윤은정.(2014).<포스트구조주의의 표현적 특성을 이용한 도자조형연구:인간의 삶을 중심으로>.석사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채지나.(2014).<유기적 형태를 조형화 한 장신구 연구>.석사논문.홍익대학교 대학원

최은정.(2006).<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여화여자대학원

<학술지 및 단행본>

김용환.(2003).<공감과 연민의 감정의 도덕적 함의.철학 제 76집>한국철학회발행

김혜영.(2000).<문학적 체험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로, 국어교육 연구 7집>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노용무.(2004).<현대시의 문학적 체험과 알레고리 국어문학 39집>
임춘식.(1990).<현대사회와 인간소외>.한남대학교출판부
윤난지엮음.(2010).<추상미술 읽기>.미진사
월간미술.(1999).<세계미술용어사전>.월간미술
Erich Fromm,이규호(역).(1981).<건전한 사회>.서울삼성출판사
Ernst Fischer,김성기(역)(1984).<예술이란 무엇인가>.서울:돌베개
Rudolf Arnheim,김춘일(역).(1995).<미술과 시지각>.미진사

ABSTRACT

Study of the expression about inner wounds and sympathy

–Focusing on author's work–

Lim, Yoobin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cludes results of the research that analyzed the contents and formal development mainly of my paintings exhibited under the title of 'permeating strokes' in August 2015 as part of the series of paintings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2014–2015.

Carl Jung's theory on personality types shows the various behavioural patterns and attitudes with two mutually exclusive attitudes –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While the former is more comfortable with the world of objects and other people, the latter become more immersed in their inner world rather than the external world.

Having been a person with strong introvert tendency, I used to explore myself since when I was a teenager posing a question, "Who am I?" Then through the experiences of marriage, childbirth and raising children, I started to take interest in and communicate with others, asking 'What is the human being?', which expanded my exploration further into the external world. One day I happened to

see homeless people and prostitutes on a subway station. That sight was not unusual but somehow inside me it suddenly evoked a strong feeling of compassion toward them and I even wished to become their mother back in their childhood. The compassion was evolved into concerns on the people isolated in the society.

While today's society is basking in material richness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is also suffering a lack of ability to maintain mental comfort. In other words, people are having a sense of loneliness in the crowd, a loss of social bond, an experience of a precarious society that makes it more difficult to predict future direction of life, and a feeling of helplessness in the face of complex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o put it another way, behind the economic wealt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current society lies such problems as spiritual emptiness or human isolation.

I have brought out and visualized those dark and negative inner aspects of people who are faced with limitations of life and wounded in their course of life and have propose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and change by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touched by the painter's strokes.

To this end, in an effort to analyze the researcher's paintings, the paper dealt with the human experience of limitation of life in a fast changing society mainly addressing the concept of isolation and it also described the feelings of sympathy and compassion toward isolated people. For comparative analysis to define commonality and distinctiveness, the works of Francis Bacon and Robert Longo who had

explored contemporary humankind were studied.

As for the formal development of the works,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works were analyzed. The paper also described about geometrical and organic forms of the non-figuratif appearing in the works, expression of texture using woven materials, and selection and usage of colors. In addition, a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ontents and formal development of the works.

The research and works carried out for the past two years could be seen as a process to understand others as well as to release the internal energy toward the hurt in order to stroke and embrace them. I hope the works give an opportunity to pond over and feel empathy and compassion and to understand oneself and others.